

# 새해맞이 옛사람들의 소망 담은 민화의 향연



‘책거리(19세기)’.

광주신세계갤러리 제공

**광주신세계갤러리 신년기획전**  
내일부터 김세종민화컬렉션  
조선 말기 대표 민화 17점  
호도·화조도·책거리 등 엄선  
국내 최초 ‘화조도병풍’ 전시  
“신년 맞아 좋은 기운 전달하길”

신년을 맞아 조선민화의 독창적인 매력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가 찾아온다.

광주신세계갤러리는 신년기획전 ‘조선민화, 신세계에서 꽃피다- 김세종민화컬렉션’을 이달 28일부터 내년 2월3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조선민화의 전성기였던 19세기 후반~20세기 초에 완성된 원화 17점과 고가구, 도자기를 함께 선보인다.

국내 최대 규모의 조선민화 컬렉션인 ‘김세종민화컬렉션’ 중 화조도, 책거리,

까지호랑이를 중심으로 한 대표작들을 포함해 지난해 경매를 통해 일본에서 국내로 돌아온 ‘화조도병풍’이 국내 최초로 전시되며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작품은 일제강점기 반출돼 일본에서 소장돼 온 것으로 추측된다. 지난 1982년 이우환 작가가 편집에 참여했던 일본에 한국민화를 소개한 ‘이조민화’에 수록된 바 있다.

김세종민화컬렉션은 ‘조선민화까지호랑이’, ‘불가사의의 아름다운 민화’, ‘판타지아조선-김세종민화컬렉션’ 등 다수의 기획전과 초대전에서 민화를 선보여 왔다.

이 밖에도 △운룡도 △호도 △책거리 △화조도 등이 전시돼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운룡도는 용과 구름이 함께 등장하는 그림으로 삼국시대 이전부터 각종 의장과 공예에 새겨진 운룡 도상이 조선시대에도 도자, 공예부터 단독 회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활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호도에는 우리 민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범접하기 어렵고 용맹한 호랑이와 까치가 등장한다. 은혜를 갚는 보은의 상징이기도 한 호랑이는 사냥감을, 까치는 기본 소식을 막는 상징성이 있다.

책거리는 책장 없이 물건과 책을 그린 그림을 말한다.

책은 선비 문화의 모체로서 책가도는 18세기 후반 정조시기 궁중회화로 먼저 유행했다. 이후 19세기부터 20세기까지 민화로 인기가 지속된다. 책거리 그림에 그려진 대상을 통해 당대의 역사, 경제, 사상, 일상을 다양하게 추측해 볼 수 있다. 또한 현대적이고 독창적인 디자인 요소를 지닌 점과 미니멀리즘을 보는 듯한 격자무늬와 선적인 요소, 역원근법을 이용한 기발한 공간 구성은 독보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화조도는 꽃과 새를 주 소재로 해 넓게는 꽃뿐만 아니라 나무나 풀을 배경으로

새와 벌레가 어우러진 그림을 말한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추구하는 정서와 가치관이 녹아 있고 화려한 채색과 장식성이 돋보인다. 특히 부부간 금실, 화목, 행복 등을 상징하며 어떤 장르보다 대중성을 확보해 현재까지도 가장 많은 양이 전해진다. 왕실과 양반들의 수요로 그려진 화조도의 경우 장식성이 강하지만 획일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고 민간에서 그려진 화조도의 경우 투박해 보이지만 자유롭고 창의성이 돋보인다.

이번 전시에서 눈여겨볼 민화의 특징은 민중의 소망이 담겨 있다는 점과 세계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새로운 조형성이다.

조선시대 민중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아이가 돌이 되면 장수와 출세를 기원하는 병풍을 들렸다. 혼례를 올릴 때는 부귀와 다산을 기원하는 화조 병풍을 들렸으며,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도 화려한 꽃상여와 병풍으로 고인을 배웅하며 집안의

대소사를 함께 했다. 생로병사, 희로애락을 함께한 민화를 감상하는 것은 가족의 건강을 바라는 소망부터 이상향에 대한 꿈까지, 신년을 맞아 앞서 떠나간 이들의 소중한 마음을 만나는 뜻깊은 일이다.

또한 소재나 기법은 궁중장식화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자유롭게 표현돼 기존에는 볼 수 없던 조형미를 만들어 낸 민화 작품들이 전시장에 펼쳐져 이목을 끈다.

이번 전시를 기획한 백지홍 광주신세계갤러리 큐레이터는 “이번 전시는 조선 말기 혼란 속에서도 피어난 새로운 시각성을 선보이는 자리”라며 “대상을 해체하고 재해석하는 자유 속에 담아낸 옛사람들의 소망이 새해를 맞이하는 모든 이들에게 좋은 기운으로 전해지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신년기획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광주신세계갤러리 데스크(062-360-1271)로 문의하면 된다.

박찬 기자 chan.park@jnilbo.com



## ACC서 ‘나만의 겨울’ 찾아보세요

ACC재단 겨울방학 프로그램  
내달 10일부터 2월14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 재단)은 다음달 10일부터 2월14일까지 ACC 어린이문화원과 어린이창작 실험실 등에서 겨울방학 프로그램 ‘겨울 모험?!’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겨울 이야기 속으로 △겨울 놀이 속으로 △겨울 느낌 속으로 등 3개의 주제로 총 11종의 문화예술 교육이 진행된다. 겨울의 모습을 이야기와 놀이, 감각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어린이들이 겨울에 대한 호기심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구성했다.

먼저 ‘새해는 언제 시작될까?’는 어린이문화원 다목적홀에서 진행 중인 특별전시 ‘아시아 이야기 꾸러미: 신나는 그림책 모험’과 연계해 가족이 함께 특별한 새해를 맞이하도록 준비했다.

2~3세 영유아 가족을 대상으로 한 ‘추운 겨울, 따뜻한 뱃속, 춤추는 우리’는 엄마 뱃속을 빛과 소리 등 다양

한 감각으로 느껴보는 참여형 퍼포먼스 워크숍으로, 어린 자녀를 둔 가족에게 특별한 겨울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을 주제로 한 특별 프로그램도 개설했다. 광주시 창업기업 제품 실증지원사업의 하나로 추진되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 파이보와 같이해요!’는 AI를 활용해 로봇 연극 연출자를 체험할 수 있다. 이어 ‘생성형 AI와 함께하는 아시아 동화여행’은 자신의 얼굴과 목소리를 활용해 참가자를 닮은 캐릭터로 동화책을 만들 수 있다.

특히 내년 2월11일 초청강연 프로그램 ‘별별직업탐구’에서는 카카오프렌즈 이모티콘 캐릭터와 싸이 강남스타일 캐릭터를 제작한 권순호(호조) 캐릭터 디자이너가 강연자로 나서 생동감 있는 직업 이야기를 들려준다.

겨울방학 프로그램은 강의별로 유·무료로 진행되며 수강 신청은 다음달 2일부터 ACC재단 누리집(www.accf.go.kr)을 통해 할 수 있다.

박찬 기자

## 국립광주과학관, ‘교육기부 우수기관’ 선정

다각적 과학문화 활동 지원 공로

국립광주과학관은 지난 23일 ‘교육기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는 공공 및 민간의 우수한 관련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이를 청소년에게 확대·제공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시행됐다.

국립광주과학관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다각적인 교육기부 활동을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우수기관 자격은 내년 1월1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 향후 3년간 유지된다.

국립광주과학관은 도서벽지 학교를 찾아가는 ‘찾아가는 과학관’, 과학문화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1박 2일 캠프 프로



국립광주과학관이 운영하는 ‘찾아가는 과학관’ 프로그램 체험 현장. 국립광주과학관 제공

그램 ‘과학꿈나무 초청 행사’와 휴관일에 진행되는 ‘휴관일 특별 초청행사’ 등을 통해 다양하게 교육기부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정화 국립광주과학관 과학교육실 선

박찬 기자

## 제1회 동구생활문화동아리 오피스갤러리 특별전 개막

무등갤러리서 ‘아름다운 시작’  
31일까지... 작품 150여점 전시

광주 동구문화관광재단은 26일 무등갤러리에서 제1회 동구생활문화동아리 오피스갤러리 특별전시 ‘아름다운 시작’을 개관했다.

이날부터 31일까지 6일간 무등갤러리에서 펼쳐지는 이번 특별전시는 동구생활문화동아리연합회 전시분과 소속 11개 동아리가 오피스갤러리를 통해 공개한 작

품 중 우수 작품 150여점을 선별해 선보이는 자리다.

오피스갤러리는 동구에서 활동하는 동아리 등 생활문화예술인에게 동구문화관광재단 사무실 유휴공간을 전시 공간으로 탈바꿈해 전시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한 해 동안 11개 동아리가 참여해 작품을 전시한 바 있다.

이번 특별전시에서는 △서사모 △한글 사랑서예회 △서사모문인화 △펜셀스케

치 △동구마루서각회 △폼새캘리그래피 △모아미래도붓글씨 △호남풍류야회 △빛고을송연회 △고은캘리동호회 △구상회화반 등에서 작품을 출품했다.

임택 동구문화재단 이사장은 “지난 1년간 오피스갤러리와 동구동아리 페스티벌 등을 통해 동구생활문화동아리 회원을 비롯한 예술인들이 생활 문화의 꽃을 피웠다”며 “한 해를 돌아보는 연말에 전시 작품을 감상하며 따뜻하게 마무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찬 기자